

포기 모르는 '기태야구'

5월의 사나이

추신수, 이틀 연속 1회 선두 타자 홈런

나흘째 멀티히트...13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이틀 연속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터뜨리고 나흘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쳤다.

추신수는 13일(현지시간) 미국프로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0-0이던 1회말 우측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시원한 솔로 아치를 그렸다.

전날과 똑같은 상황에서 나온 포물선으로 시즌 홈런은 5개로, 개인 통산 1회 선두 타자 홈런은 16개로 늘었다. 추신수는 또 5월 1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경기부터 시작한 연속 경기 안타를 '13'으로 연장했다.

추신수는 볼 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로열스의 우완 강속구 투수 요르다노 벤투라의 시속 158km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장쾌한 대포를 뿜었다. 팀이 2-0으로 앞선 2회 무사 1루 두 번째 타석에서 추신수는 벤투라의 시속 154km짜리 초구 빠른 볼을 끌어당겨 우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진루타를 날렸다.

약동 같은 4월을 지나고 5월 시작과 함께 방망이에 불을 붙인 추신수는 두 타석 모두 안타를 때려 4경기 연속이자 시즌 6번째 멀티 히트를 작성했다.

추신수는 4회 1사 3루에서 2루수 땅볼로 타점 1개를 더 보았다. 이날만 2개를 올린 추신수의 시즌 타점은 16개가 됐다.

추신수는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이날 타격을 마무리했다. 전날 딱 한 달 만에 타율 2할을 회복한 그는 시즌 타율을 0.214에서 0.224(107타수 24안타)로 올렸다.

5월에 올린 타율은 0.345(55타수 19안타), 홈런은 4개, 타점은 11개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맹타와 프린스 필더의 2점 홈런을 앞세워 5-2로 승리했다. 추신수가 톱타자로 돌아선 이래 텍사스는 7승 3패를 거뒀다.

/연합뉴스



“이것이 야구”

13일 오후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경기 10회말 2사 1, 2루 상황에서 KIA 김민우가 3점 끝내기 역전 홈런을 치고 홈인하며 동료들의 물세례 축하를 받고 있다. 경기는 KIA가 9대 8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김감독 최초 '4루수 수비시프트' 선보이며 승리 의지 연패 상황서도 미소·평고 호호하며 선수들 자극시켜 김민우, KT전 연장 10회 8-6 상황서 끝내기 쓰리런

연패상황에서 팀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게 웃는 얼굴로 그라운드에서 훈련을 하고, 팀 승리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다. 1%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기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화제의 인물도 됐다.

끝까지 가는 야구를 선보이고 있는 KIA, 달라진 팀의 분위기 메이커는 다름 아닌 김감독이다.

14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KIA가 화제의 팀이 됐다. 김감독이 선보인 파격적인 시프트때문이다. 13일 kt전에서 8회 출격한 좌완 심동섭이 선두타자 안타에 이어 스트레이트 볼넷까지 내준 뒤 신명철의 희생번트로 1사 2·3루의 위기에 몰렸다. 하준호의 유격수 땅볼 때 홈에 들어오던 주자를 잡아냈지만 2사 2·3루, 첫 타석에서 홈런을 때리기도 했던 김상현이 타석에 들어서자 벤치가 분주해졌다.

김 감독의 지시로 3루수 이범호가 걸음을 옮겨 포수 뒤쪽에 자리를 한 것이다. 잠시 소란스러웠던 그라운드, 이내 심판들이 “경기 중 인 플레이 상황에서 포수

를 제외한 모든 야수는 페어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물을 언급하면서 이범호는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김상현의 고의 사구 이후 윤석민이 박경수를 삼구삼진으로 돌려세우며 9회가 마무리됐지만 포수 뒤에 야수를 세우는 ‘4루수 시프트’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화제의 인물이 된 김 감독은 “물을 숙하지 못했다”고 시원하게 실수를 인정했지만 14일 덕아웃의 대화 주제 역시 시프트였다.

경기 연장 10회 김민우의 역전 끝내기 쓰리런으로 끝나면서 더 유쾌했던 덕아웃 분위기. 선수들의 반응은 ‘해볼 수 있는 시도’였다.

시프트의 중심이었던 이범호는 “결리려고 하였고 볼데드 상황으로 보낼 수도 있다. 물이라는 것이 작은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한 해보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해보는 것이 더 낫다.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다”고 언급을 했다.

“제가 믿음을 못 드렸다”고 씩스러운 표정을 짓던

심동섭도 “처음에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나도 어리둥절했다.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당황도 했지만 팀 승리가 중요하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선수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만큼 승리를 위해 고민을 하고 움직이는 수장의 모습은 오히려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감독은 지난달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어필로 주목을 받았다. 김 감독은 LG와의 잠실 경기에서 ‘스리 피트 라인’ 적용에 대한 어필을 하는 도중 직접 그라운드에 누워 스리피트 라인에 대한 강조를 하다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올 시즌 1호 퇴장 감독이 됐지만 감독의 움직임은 선수단을 묶는 기폭제가 됐고 경기는 9-4 승리로 끝났다.

연패 상황에서도 김 감독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직접 글러브를 끼고 나와 선수들과 평고를 받으면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그런 김 감독의 모습을 보고 한 선수는 “감독님께서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저렇게 하시는 것 같다. 속으로는 많이 속상하실 거고 생각이 많으실 것인데 억지로 움직이시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계신다. 그런 모습을 보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수장의 모습, KIA의 야구도 끝까지 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필 “‘4루수 시프트’ 보고 미국 친구들한테 문자 왔어요”

덕아웃 특·독

▲“너의 야구 실력은 높고 있지만 내 수명이 줄고 있다.” = 나가무라 배터리 코치의 농담 같은 진담, 진담 같은 농담이었다. 나가무라 코치가 애제자 이흥구에게 애정이 어린 쓴소리를 했다. 전날 스타팅으로 나온 이흥구는 이대형을 두 차례 2루 베이스로 내보내는 등 3개의 도루를 허용했다.

나가무라 코치는 “3개 중 2개는 저지했어야 했다. 다른 팀 선수들이 무료승자를 하고 있다. 어제 위약 3개를 먹었다”며 짓웃은 농담을 했다. 그래도 조금씩 여유를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는 밝은 제자다. 쓴소리에도 밝은 표정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외치는 이흥구를 향해 나가무라 코치는 “너의 야구 실력은 높고 있지만 내 수명이 줄고 있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2009년 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 하룻밤 사이에 월드스타가 된 이범호다. 13일 ‘4루수 시프트’의 주인공이었던 이범호는 경기 영상에 해외에도 소개되면서 얼굴을 알렸다. 2009년 WBC 활약으로 해외 야구팬들에게도 이름을 알렸던 이범호는 모처럼 다시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범호는 “2009년 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본 것 같다. 나중에 해외 나가면 그때 그 사람이 나라고 소개해야겠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위치에) 다녀와서 표정이 좋았다”고 웃었다.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 외국인 선수 필에게 한국에서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더해졌다. 외국에서도 화제가 된 ‘4루수 시프트’. 해외에서 영상을 본 친구들이 필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필은 “조금 혼란스러웠다. 영상을 본 친구들에게 문자가 왔

다”고 웃었다. 친구들에게 온 문자들, 그 중에는 지난해 KIA에서 뛰었던 홈런의 문자도 있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 베테랑 유격수 김민우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김민우는 13일 kt와의 경기에서 연장 10회말 2사에서 끝내기 역전 쓰리런을 때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생애 첫 끝내기 홈런을 때렸던 김민우는 “앞선 타석에서 직구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직구 승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 맞는 순간 홈런이 줄었다. 기분이 좋다”고 언급했다. “잠을 못 이루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꼭 잘 것 같다”고 답한 김민우. 하지만 14일 김민우는 “괜히 기분이 그랬다. 잠이 안 오더라”고 웃으며 말했다. 잠은 못 이루었지만 피곤한 기색 하나 없는 밝은 표정으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